

희연병원 견학 보고서

윤재호¹

1. 개요

- 1) 일 시 : 2008년 3월 18일(화), 13:30~16:00
- 2) 기 관 : 희연병원²
- 3) 목 적 : 한국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실체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현장견학
- 4) 견학순서 : 이사장 오리엔테이션 -> 각 담당별 면담 -> 질의응답

2. 내용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내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복합화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덕진 이사장이 운영하는 희연병원을 하루 코스로 방문하였다.

방문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희연병원의 연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파악 하였고, 희연병원 일본계장과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과 방문 시 중점적으로 볼 내용에 대해 조율하였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에 대한 실체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현장견학을 목적으로 참여 하였지만, 주로 일본의 시설에서 견학과 실습을 통해 느낀 시설운영에 있어 software³의 중요성과 한국과 일본의 software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되어⁴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해 담당자와 면담(질문과 답변)하게 되었다.

1992년 온천병원⁵을 개설한 뒤 접고, 문제점을 보완⁶하여 1997년 지금의 희연병원을 개설하였다.

병원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⁷, 자연스럽게 상가 내 주변점포와 융화되어 이루어져 있었다. 접근성은 곧 가족간의 관계형성에 있어 중요한

¹ 日本福祉大学(<http://www.n-fukushi.ac.jp/>) 대학원 석사과정, jehoyun@welfare.or.kr

² 경상남도 창원소재, <http://www.silver-town.or.kr/>

³ 개호서비스의 기술, 서비스 방침, 우수한 개호복지사의 육성 및 관리 등 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자가 펼칠 수 있는 모든 운영기술

⁴ 한국의 경우 1996년부터 중고생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가 학교내 필수 이수로 진행되어 실시되고 있다. 개호시설의 경우 시설 내 청소 및 말벗 자원봉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이 외에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호시설의 경우 자원봉사 담당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의 보조적 역할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⁵ 일본의 경우 유명 온천지에 온천병원이 있어 온천이용 환자의 문의, 상담,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전 과목 치료를 맡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비뇨기과, 부인과를 취급하고 있다.

⁶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⁷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는 걸로 안내 받았다.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타큐슈의 고쿠라재활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희연병원은 인재양성 및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개월에 한번씩 있는 일본시설 견학, 1인 1전공⁸, 매월 추천책⁹, 각종 교육 및 학회 참여 장려등으로 전문인력으로 향상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각 전문인력의 능력향상을 꾀하고, 18개의 전문직¹⁰들간의 유기적인 협력¹¹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희연병원만의 인력평가시스템으로 모든 평가를 데이터와 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낸 후 연봉책정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전문직으로의 상호 인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었다.

자원봉사 활용 부분에서는 자원봉사담당(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의 홍보, 접수, 교육, 실행, 평가에서 적절한 개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은 사회복지사가 실행하고 실행에서 나오는 교육은 간호사를 비롯한 직접 활동하는 직원에 의해 보조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평가서의 홈페이지 업로드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담당 학교 및 인사과(회사의 경우)에 제공하여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주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¹² 및 말벗지원 그리고 성인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경우 입욕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를 진행함으로써, 각 전문직의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응 또한 하고 있었다.

건물의 3~5층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이외에 Nursing Home의 개 설을 통해 7월에 실시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대응을 하고 있었다¹³. 이 외에 창원과 같은 생활권인 마산¹⁴에 분점(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근간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⁸ 간호사라면 노인 간호에 있어 자격을 1인 1개 이상 가져야 한다.

⁹ 매월 책을 한권씩 추천하고 독서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독서를 장려한다(독서록 작성시 책 무상제공)

¹⁰ 보호사, 조무사, 구조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관리자, 방사선사, 병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직, 심사직, 전산직, 관리직, 행정직

¹¹ Nurse station을 Staff station으로 개정하고 각 전문직의 team approach가 이루어진다.

¹² 청소 및 주변정리

¹³ 4월 1일로 직원발령을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은 이미 완비한 상태에 있다. 시설은 가운데 거실을 두고 식당을 마련한 뒤, 양 창쪽을 중심으로 방을 만든 구조로 되어 있다.

¹⁴ 자동차로 약 15~20분 거리에 있으며,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이 같은 운영권에 있다.

3. 결론

일본의 시설을 견학하고 실습하며 일본의 개호서비스 실력은 사회보험 및 정부의 각종 보조가 아닌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기술 및 운영에 있어 철저한 normalization 개념의 적용 등에 깊은 공감을 했다.

몇몇 기관만의 개념이 아닌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normalization 개념의 적용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각 전문직간의 상호협력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많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한 것은 아니나, 희연병원의 경우 서비스의 software의 강화를 통해 사업강화를 꾀하고 있었으며, 이는 신설되는 병원의 시설면의 장점보다 더 큰 경쟁력으로 보였고, 실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의 방분을 통해 한국의 개호서비스 변화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귀한 견학이었다.

4. 사진

